



Column



도로주행 농기계의 농번기
교통안전 심각



사고현장 집중분석



무단횡단
차대사람 사고



Issue 집중분석



[연구소 보도]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결과 발표



알고싶은 교통안전



어린이 교통사고의 54.8%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

Hot Issue

- 주행 중 방향지시등 켜기 50% 수준!! - 운전자의 ...
-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 자동차번호판 개선안 국민 목소리 한 번 더...

알리는 말씀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드리는
[봄철 졸음운전의 위험성과 대처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ASN의 지난 호는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 02-7573-112 보험범죄 신고센터 (신고자 익명성 보장)

공정사회 위협하는 보험범죄 척결, 삼성화재가 앞장 서겠습니다.

체포보상금 : 적발금액의 10~20% (최소 30만~최대10억원) 병원·정비업체(공장, 부품상, 렌트업체 등)의
불법/부당행위, 고의 / 허위사고, 운전자/차량 바꿔치기, 음주사고 등 당신의 전화 한 통이 공정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f 페이스북 트위터 친구들과 공유하기

2018년 09호 PDF 다운받기>



☎ 02-3465-8100

교통사고 예방의 달인 시리즈는 격주로 발행됩니다.

지난 호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홈페이지 (<http://sts.samsungfire.com>)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SAMSUNG



COLUMN

HOT ISSUE

사고현장 집중분석

ISSUE 집중분석

알고싶은 교통안전

Column

도로주행 농기계의 농번기 교통안전 심각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최근 10여 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여 머지 않아 연간 3천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적 피해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이하 치사율)는 점차 낮아져 2016년 기준, 1.9명 수준이다. 한편, 도로주행 농기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보면 '02년 83명에서 '16년에는 73명으로 12% 감소하였다. 문제는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인데, 최근 5년간 평균 17.6명으로 나타나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1.9명) 보다 8.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주행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 차량은 상대적으로 각종 안전장치가 지속 개선되고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받고, 교통사고 야기자와 일정 기준 이상 법규 위반자는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 받고 특별 안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농기계 운행에 관련한 안전관리 강화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고 물리적으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기계 운전자는 면허증도 없으며, 농기계 제작자가 희망자에 한해 겨우 몇 시간 실시하는 기초교육이 전부인 실정이다. 심지어 농기계는 운행특성상 관습법처럼 음주운전이 만연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만나면 술을 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농기계 사고는 언제, 어떤 유형이 많은가? 도로주행 농기계 교통사고는 농사철이 시작되는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농번기의 중심인 5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전도/전복사고 28%, 도로미탈 추락사고 16%, 자동차 측면 직각 충돌사고 11% 순이다. 또한 농기계 사고는 야간보다 야간 시간대에 61% 발생하고 있다. 야간에 서행하거나 도로변에 주정차하고 있을 때 다른 자동차가 농기계를 추돌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며 이때 사망자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대책은 무엇인가? 일반 자동차의 도로주행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예외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등록번호판이 없어도 공로를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의 안전기준이 일부 강화되어 신규 출고되는 농기계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출고하여 운행 중인 전체 농기계의 약 80% (120만대)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강화된 농기계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은 최고 주행속도 19km/h 이상인 농기계의 동화장치 부분은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을 부착해야 하며, 특히 트레일러에는 야간 반사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반사판은 트레일러 뒷문을 제거해도 야간에 150m 후방에서 자동차 전조등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저속 차량 표시등을 고정 설치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농기계 고장 등의 문제 발생시에는 안전조치로 도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 고장차량 표지(안전삼각대)를 100m 이상 뒤쪽 도로상에, 야간에는 200m 이상 뒤쪽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안전관리 기준 강화에도 필자는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해 근심을 떨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미 운행 중인 120만 대의 농기계에 대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한다고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농기계는 주로 농어촌지역에서 운행되는데 운전자 대부분이 60~70대의 고령자이며, 이들이 스스로 개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 적극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하며, 안전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동시에 일반 차량 운전자는 농어촌지역의 도로를 운행할 때 농기계와의 추돌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도로별 규정 속도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반대편 도로에 다른 차량이 없다면 전조등은 일시 상향등을 켜서, 서행하거나 주정차된 농기계의 조기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 도로주행 농기계는 경운기와 트랙터가 대부분이다. 이들 농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속도는 느리고 엔진소리가 매우 요란하여 농기계 운전자가 일반 차량의 접근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기계를 앞지르기 할 때 더욱 유의해야 한다.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천수 책임연구원

f 페이스북

트위터

친구들과 공유하기

2018년 09호 PDF 다운로드>



☎ 02-3465-8100 교통사고 예방의 달인 시리즈는 격주로 발행됩니다.

※ 지난 호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홈페이지 (<http://sts.samsungfire.com>)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SAMSUNG

COLUMN

HOT ISSUE

사고현장 집중분석

ISSUE 집중분석

알고싶은 교통안전

Hot Issue

주행 중 방향지시등 켜기 50% 수준!! - 운전자의 의식 개선 절실

운전 중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방향지시등 사용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도로 주행 중 방향지시등 작동여부를 조사한 결과 운전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1월 조사에서 226km의 구간을 이동하며 통행차량 1,905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진로변경 차량의 52%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고, 좌·우회전하는 차량은 54%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방향지시등 작동률이 크게 낮았다.

3월에도 동일 구간, 1,75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진로변경 차량은 56%, 좌·우회전 차량은 57%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1월보다는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방향지시등 작동률 (단위:%) >

구 분	방향지시등 작동률		증 감
	1차 조사(1월)	2차 조사(3월)	
진로변경	51.91	56.38	4.47
좌·우회전	54.55	57.48	2.93
전체	53.28	56.91	3.63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1월부터 생활교통법규를 정착하고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운전의 가장 기초인 안전한 방향지시등 켜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1월부터 3개월 간 18만 7천명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TV, 라디오, 신문, 케이블 방송, V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한 결과 1월에 비해 진로변경 방향지시등 작동률은 4%p, 좌우회전 방향지시등 작동률은 3%p 개선되었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운전자 상호간의 소통이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무언의 약속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은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데 방향지시등만 제대로 점등해도 보복운전의 48%를 예방할 수 있고, 난폭운전의 42%가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 중 방향지시등 사용은 사고예방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소동과 배려운전의 첫걸음”이라며 “진로변경과 끼어들기 과정에서 방향지시등만 규정대로 사용해도 교통사고와 보복운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올 한 해 동안 안전한 방향지시등 켜기에 대한 집중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매년 개선되어야 할 교통현장의 주요 테마를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향지시등 작동 사례>



<방향지시등 미작동 사례>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 설치 10년 경과한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의무화... 검사원 자격요건도 강화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법 개정('17. 3)에 따라 하위법령 및 세부 기준을 마련('18. 5)하여 5월 16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기계의 노후에 따른 결함 등으로 분석됨에 따른 대책이다.

* '10년: 2건(사망2명) → '15년: 10건(사망5명, 부상5명) → '17년: 20건(사망9명, 부상9명)

이에 따라, 설치한 지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계결함 원인이 불명확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중대한 사고)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 자동차 전복 또는 추락 사고

'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4만 7,475여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설치된 지 10년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은 약 76%를 차지하며, 장기간 사용하면서 기계의 마모, 결함 등에 따른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동차 등록 현황: ('97년) 1,041 만대 → ('17년) 2,252만대 (2.2배 증가)

** 기계식주차장 설치현황: ('97년) 3,430 기 → ('17년) 47,475기 (13.8배 증가)



COLUMN

HOT ISSUE

사고현장 집중분석

ISSUE 집중분석

알고싶은 교통안전

10년 이상 기계식주차장			전체('18.3기준)
10년~20년	20년 초과	계	
18,827 (39.7%)	17,241 (36.3%)	36,068 (76.0%)	47,475

그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년 마다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일반장비를 이용한 샘플링 검사로 진행되어 기계의 결함을 사전에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밀안전검사는 고도화된 검사 장비를 통해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고 기계 결함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예방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검사항목은 초음파탐상측정기를 이용한 구동축 검사, 진동측정기를 이용한 베어링 검사,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열화상태 검사 등이다.

▶ 주요 검사 항목

승·하강 장치 검사	베어링 결함검사	체인 검사
 - 초음파탐상기를 이용하여 구동축 내부 크랙 및 용접부 결함 등 확인	 - 진동측정기를 이용하여 베어링의 결함 확인	 -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전동·구동 체인 마모 확인
와이어로프 검사	안전장치 검사	조도 검사
 - 와이어로프 하중측정기를 이용한 안전도 검증 - 와이어로프의 직경 감소를 측정으로 마모 확인	 - 각종 안전장치에 대하여 PLC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오류, 결함 등 검출	 - 조도계를 이용하여 주차장치 출입구 및 주차구획의 조도를 측정

교통사고 예방의 달인 시리즈

제09호

2018. 05. 15
AUTO SAFETY NEWS

COLUMN

HOT ISSUE

사고현장 집중분석

ISSUE 집중분석

알고싶은 교통안전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20년이 지난 주차장부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10년이 지난 주차장은 '20년 3월부터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장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에는 정기검사를 생략하기로 했으며, 정밀안전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160시간의 전문 기술교육을 이수하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 설치후 20년↑ : '18. 5월부터 시행, 설치후 10년~20년 : '20. 3월부터 시행

예) 2018년 5월 25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기존의 정기검사(2년 주기)는 지속적으로 수행 예정

정밀안전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160시간의 전문 기술교육을 이수하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 전문 기술교육 시행(55명) : 1차 28명('18.1.18~2.14), 2차 27명('18.2.19~3.19)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밀안전검사 시행을 계기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작동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번호판 개선안 국민 목소리 한 번 더...

국토교통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에 대한 관련기관, 업계·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5월 10일(목)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황희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공공디자인재단

이번 등록번호판 개선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속한 증가추이와 자율차 등 미래 교통수단 출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등록번호의 허용 용량을 대폭 확대하고자 추진하였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전문기관의 공동 연구('16. 10. ~)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지자체·업계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18. 3.) 및 전문기관의 여론조사('18. 4.)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COLUMN

HOT ISSUE

사고현장 집중분석

ISSUE 집중분석

알고싶은 교통안전

* (등록번호체계) 앞자리 숫자 추가방식 또는 한글받침 추가방식

(디자인·서체) 번호판에 반사필름을 부착하여 국가상징문양·홀로그램 등 디자인적 요소를 삽입하고, 기능성 서체를 도입하는 방식

최근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결과, 번호체계의 경우 숫자 추가방식에 대해 온라인 응답자(총 36,103명)의 78.1%, 오프라인 응답자(유효표본 600명)의 62.1%가 선호하였으며,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등록체계

구분	숫자 추가	한글받침 추가
		
온라인	78.1%	21.9%
갤럽	62.1%	37.9%

▶ 디자인

구분	현행방식	변경방식
		
		
온라인	42.6%	57.4%
갤럽	47.0%	53.0%

COLUMN

HOT ISSUE

사고현장 집중분석

ISSUE 집중분석

알고싶은 교통안전

▶ 서체

	현행서체	변경서체
구분		
		
온라인	44.5%	32.2%
갤럽	51.2%	67.8%



COLUMN

HOT ISSUE

사고현장 집중분석

ISSUE 집중분석

알고싶은 교통안전

사고현장 집중분석

무단횡단 차대사람 사고



> 사고개요

- 사고 일시 : 20XX. 4. 17. 04:40경
- 사고 장소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사고 유형 : 차대사람 사고
- 피해 규모 : 1명 부상 및 차량파손

> 사고내용

- 사고차량은 만수사거리부근 2차선 직진주행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접촉한 사고

> 도로 환경 여건

- 선형 : 왕복 8차로 도로의 직선형태
- 노폭 : 차로폭은 3.5m, 도로 전체 폭은 25m
- 환경 : 사고 당시 노면은 아스팔트 포장 건조한 상태

COLUMN

HOT ISSUE

사고현장 집중분석

ISSUE 집중분석

알고싶은 교통안전



[사고 장소]



[최종 상태]

> 사고 원인

- 사고차량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 향해 주행 중이었으면 속도를 줄이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의 교통상황만 보고 진행하다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이 일부 인정됨
- 보행자의 경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가 주변에 있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일부 과실이 인정됨

> 사고 교훈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높으며, 특히 야간의 무단횡단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환경이므로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여 절대로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함



페이스북



트위터

친구들과 공유하기

2018년 09호 PDF 다운로드>



☎ 02-3465-8100 교통사고 예방의 달인 시리즈는 격주로 발행됩니다.

※ 지난 호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홈페이지 (<http://sts.samsungfire.com>)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SAMSUNG



COLUMN

HOT ISSUE

사고현장 집중분석

ISSUE 집중분석

알고싶은 교통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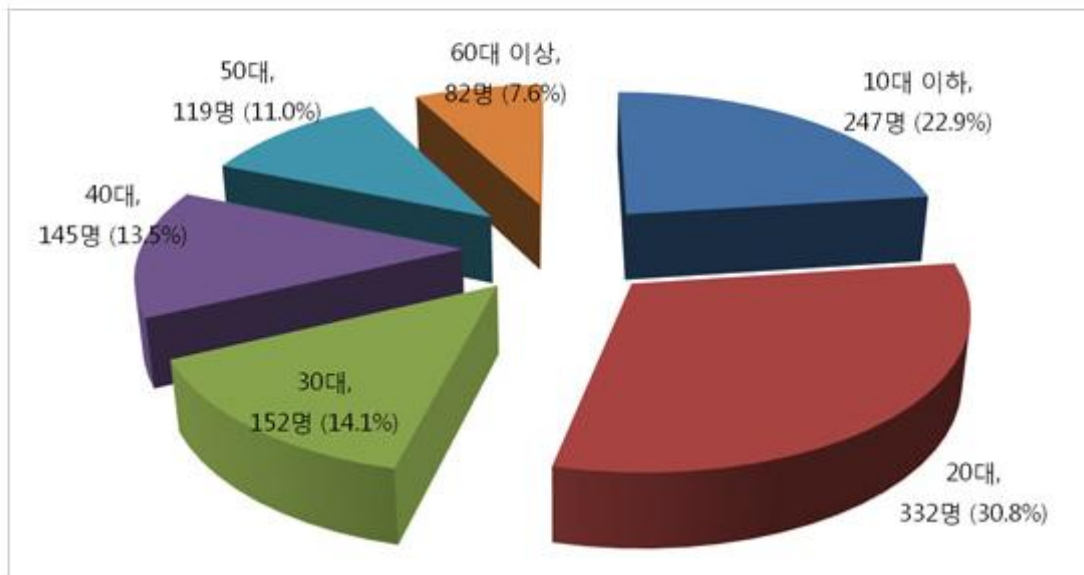
Issue 집중분석

[연구소 보도]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결과 발표

삼성화재 부설 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대진)는 13일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3년 동안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차대인사고' 중 '주의분산 행동 관련 사고'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날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행 중 주의분산 행동 교통사고 통계분석 결과

- 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 최근 3년간(2014~2016년) 사상자수 1791명 발생
※ 손보업계 전체로 보면 6340건 발생, 사상자수 6470명으로 추산됨
- 주의분산 보행사고의 61.7%는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
- 휴대전화 사용 중 사상자의 절반이상(53.8%)이 10대와 20대가 차지
- 10·20대 휴대전화 사용 중 사고의 71%가 8~9시(등교·출근 시간) 집중
- 일평균 휴대전화 사용 중 사상자 비율, 주중(16.5%)이 주말(8.6%) 대비 2배



※ 연령대 불명(28명)은 제외함.

[연령대별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중 교통사고 사상자수 구성비(%)]

> 보행 중 주의분산 행동 현장조사 결과

- 전체 보행자의 20.3%가 횡단보도 통행 중 주의분산 행동

COLUMN

HOT ISSUE

사고현장 집중분석

ISSUE 집중분석

알고싶은 교통안전

- 횡단보도 횡단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차량과의 *상충 20.0%, 타인과의 상충 17.1% 발생
* 상충 : 보행자와 차량간 충돌 또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기 위한 동작
- 횡단보도 횡단 시작 전 좌우를 확인하는 보행자는 15.2%에 불과

< 횡단보도 횡단 중 휴대전화 사용 유형별 보행자수 및 구성비 >

보행 중 주의분산 행동	주의분산 보행자(명)	구성비(%)
음악 청취	801	40.1
통화	206	10.3
휴대전화 주시·조작	816	40.9
합계	1,8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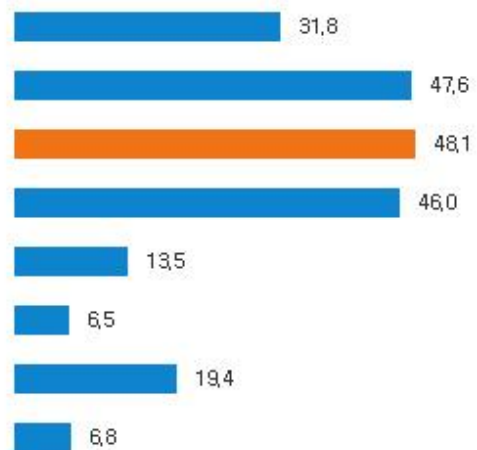
> 도로이용 보행자 교통안전 의식조사 결과

- 보행자 10명 중 7명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걷다가 *'아차 사고' 경험
* 아차사고 : 보행 중 차량, 다른 보행자, 장애물과 충돌할 뻔한 경우
- 휴대전화를 보거나 조작하면서 걷는 행동이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함과 동시에, 가장 자주하는 행동이라고 응답
→ 보행 중 주의분산 행동별 사고위험성에 대한 평가 결과(5점 만점),
"휴대전화 주시·조작" 4.4점, "인쇄물 보기" 3.6점, "통화" 3.4점
"음악청취/다른 곳 보기" 3.3점, "소지품 찾거나 줍기" 3.1점 순

[사고위험성(5점 만점)]



[발생빈도('자주한다'는 응답율)]



COLUMN

HOT ISSUE

사고현장 집중분석

ISSUE 집중분석

알고싶은 교통안전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 동행인과 대화 등의 다중작업(Multitasking)은 주의분산의 원인으로, 전방주시율 및 지각능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진다. 특히,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이동하게 되면 주변소리 및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신호를 놓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기연 책임연구원은 "보행 중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도로횡단 시에는 휴대폰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부모는 평소에 자녀들에게 보행시 휴대폰이나 휴대용 IT기기의 안전한 사용법을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LUMN

HOT ISSUE

사고현장 집중분석

ISSUE 집중분석

알고싶은 교통안전

알고싶은 교통안전

어린이 교통사고의 54.8%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

- 2016년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 분석 결과...과속, 중앙선 침범보다 훨씬 높아 -
- 월별로는 5월, 요일별로는 토요일, 시간대별로는 16~18시에 가장 많이 발생 -
- "안전운전 의무만 제대로 준수해도 어린이 교통사고 크게 줄일 수 있어" -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과 같은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운전 집중해 사고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방어운전을 실천해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 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 유형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분류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방주시태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미숙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무려 5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밝혔다.

구 분 가해자 법규위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계	11,264	100.0	71	100.0	14,215	100.0
과속	29	0.3	6	8.5	32	0.2
중앙선 침범	431	3.8	4	5.6	631	4.4
신호위반	1,250	11.1	6	8.5	1,599	11.2
안전거리 미확보	818	7.3	1	1.4	1,209	8.5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6,174	54.8	44	62.0	7,659	53.9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606	5.4	0	0.0	826	5.8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109	9.8	6	8.5	1,152	8.1
기타	847	7.5	4	5.6	1,107	7.8

특히, 2016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71명)의 62.0%(44명), 부상자(14,215명)의 53.9%(7,659명)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과속(0.3%), 중앙선 침범(3.8%), 안전거리 미확보(7.3%), 신호위반(11.1%) 등과 같은 '큰 위반'보다 '작은 위반'이 어린이 교통사고에 더 치명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 예방의 달인 시리즈

제09호

2018. 05. 15
AUTO SAFETY NEWS

COLUMN

HOT ISSUE

사고현장 집중분석

ISSUE 집중분석

알고싶은 교통안전

도로교통공단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키가 작아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는데다 정서구조상 충동성 및 몰입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도로 위로 갑자기 뛰어들거나 무단횡단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들은 대체로 차량의 속도나 거리에 대한 예측능력이 부족하고 손을 들면 자동차가 즉시 멈추어 줄 것이라고 여기기 십상이라는 얘기도. 녹색보행등이 켜지면 무조건 횡단보도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길을 건너거나 차에서 내리고 타기 위해 전후좌우 살피지 않고 무작정 뛰는 아이들도 많다.

이러한 어린이의 교통행동 특성에 따른 돌발적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운전 집중하지 못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어린이가 자동차 주변에서 숨바꼭질을 하거나 공놀이 등을 하다 큰 사고를 당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어린이는 키가 작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다 어린이에게 멈추어 있는 자동차는 하나의 구조물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자동차 승차 중(43.7%), 자전거 승차 중(5.65%)보다 보행 중 피해를 입은 경우가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상자도 자동차 승차 중(58.3%)보다는 적었지만 보행 중인 상태도 31.0%나 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족단위로 이동이 잦고 야외활동이 많은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운전자는 물론 가정과 학교·보육시설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